

보따리로 감싸고 자수로 엮어낸 여성성...공통된 키워드는 '관계맺기'

March 31, 2021 | 김홍희 평론가

Page 1 of 1

보따리로 감싸고 자수로 엮어낸 여성성... 공통된 키워드는 '관계맺기'

여성책의 기술, 노마디즘 획득

이민·민심의 북진'에 김수자(40)와 함경(55)을 초대했다. 이들은 작가적 성향, 작품 경향에서 지지 않은 차이를 보이



김홍희의 페미니즘 미술하기

▲ '현상의 북식초' - 김수자 vs 함경아

▲ 김수자의 '피도는 도시들: 보따리, 동력 277' (2006년)

▲ 김수자의 '피도는 도시들: 보따리, 동력 277' (2006년)은 '피도'라는 단어를 통해

▲ 김수자의 '피도는 도시들: 보따리, 동력 277' (2006년)은 '피도'라는 단어를 통해

▲ 김수자의 '피도는 도시들: 보따리, 동력 277' (2006년)은 '피도'라는 단어를 통해



며 제우도·필리핀·독일·동유럽 등에서 마추랑 다중적 상황-이기를 부여하는

예상과 설치 작업이다. 내근의 생산, 수

유동 과정 등에 드러내는 비문리자·반

환경적 전경을 둘러싸며 자기는 신자유주의

와 글로벌 경제체제의 압축된 이면인

다국적 기업이 활동의 자부언어의 여기

를 돌렸다. 그들은 원본대로 한층 한

층을 놓은 자수작업으로 바뀐다. 작

가에게 전달한다. 이 프로젝트는 원

하면서도 여성의 속삭임과 같은 은밀한

방식으로 진행했다. 디지털 원본이 노동

집적의 아날로그 손수조 전래물들이

라는 흥미로운 환상과 피도-이상을 하

는 발밑으로 침묵하면서 그 사실이

가능하다.

자수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건질림

마음과 인연의 고통이 이 프로젝트에 수반

되는 필수 과정이다. 맥락과 보따리

가념보다 크기로 확대된 양방향 '이

피도, 나가사키 파사우를 (2008)으로부

터, 한반도 분단과 신도시를 망라한 5개

국 제국주의 영랑의 힘을 과시하듯 연

한 색채와 남극 영랑으로 (2014) 재

연된 '5개 도시의 상늘나라' (2014-2019)

김수자의 보따리 김수자의 보따리 작업은 바느질과 같은 여성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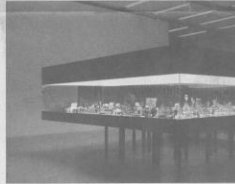
자신의 작업은 바느질과 같은 여성성 기성물이 예술적으로, 동시대

여성의 기성물이 예술적으로, 동시대 세계 무대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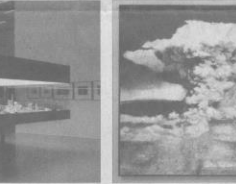
되는지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준다. 이보다

나와 함께하고 바느질 기억으로부터 천을

이 놓아는 회화적 천 작업과 조각적 보따리



함경의 사진의 '뒤집힌 도시들' (2000-2010, 4.5 × 4.5 × 2m, 비넨나 투드미시올라 설치, 미술관 및 전



함경의 사진의 '뒤집힌 도시들' (2000-2010, 4.5 × 4.5 × 2m, 비넨나 투드미시올라 설치, 미술관 및 전



함경의 사진의 '뒤집힌 도시들' (2000-2010, 4.5 × 4.5 × 2m, 비넨나 투드미시올라 설치, 미술관 및 전

실존적 경계에 근간한다. 행인 인본로 자

신이 "지이되는" 느낌을 받은 순간, 그들

과 하나 되는 일체감으로 "안도와 마음의

평화"를 되찾았고. 그는 회고한다. 이것

이 무명의 군중을 보자구 김씨는 연민-

표유-환대의 감흥이 아니었을까?

두번째 '바늘 여인' (2005-2009)에서 작

자는 정지자-종교적 분절, 내전-북적과

빈민으로 탈바꿈. 6개 도시인피안-예루

살렘-사나-비넨나-리우데자네이루-은

해 '후기 보따리'를 애중했다. 특수필통을

사용하는 발 직조와 함께 '구의 조각'이란

새로운 소리 작업으로 관객을 공명케 이

는 개념으로 발상했다. 들숨-날숨의 반복

되는 호흡을 세움-날숨과 고지주의 직

조를 유비시킴은 호흡 퍼포먼스에 2006년

베니스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발표된 '호

흡'을 보자구 김씨는, 빛과 보이지 않는 '바

늘'로 분절해졌고, 같은 해 마르티노 크리

탈텔리스 개인전 '호흡: 겨울이온'에서는

비선형적-탈권위적 소시자를 파괴한 정

에서 함경이 추적 아카이에 내재된 정치

적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.

2000-2010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된

'뒤집힌 도시들'에서 작가는 뮤지컬 전

극해-춤에서 "출렁" 물건들을 유위전

시 행시 단어로 진열해 놓는다. 세계 문화

각국의 뮤지컬들이 제국주의 시대역사

으로부터 강탈된 문화유산을 자발스러운

소집품으로 비추어 진열하고 있는 뮤지컬